



지난달 11일 개장한 한달간 대장정을 마치고 막을 내린 '2014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는 해조류의 무궁무진한 가치를 제시하고 소비 대중화와 해조류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은 박람회장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 완도군은 오는 20일까지 박람회 주제를 무료로 개장한다.

## 해조류서 찾은 완도의 미래

국도 최남단 완도군이 일으킨 기적, 2014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가 11월 31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해조류의 가치와 미래를 내다보고, 전남 해조류의 우수성을 일깨워 준 이번 박람회는 성공적 관람객 유지와 알찬 전시 내용으로 호평을 받았다.

◇지역경제 대박=지난 31일간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은 54만 여명이다. 입장권 수입은 사전예매 52만장(23억4000만원)과 현장발권 판매(6억6000만원) 등 총 30억원에 이르고 있다. 박람회장 시설물 임대 수익은 1억6000만원, 기타금 4억3000만원, 휘장·광고·협찬 사업 1억7000만원 등으로 짚짚했다. 또 기업관에서는 국내 86개 업체, 국외 16개업체 등 총 102개 업체가 43개 홍보·판매부스를 운영해 5억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조직위는 "수익 목표액(28억6300만원)보다 28% 초과한 36억8000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부분 행사가 지자체 홍보성 전지로 끝나 막대한 예산 낭비로 끝나지만 해조류 박람회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박람회 기간 해조류를 비롯한 지역 특산품은 30% 이상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숙박, 음식점도 호황을 누리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해조류박람회를 통해 생산유발 1307억원, 부가가치 536억원, 고용유발 2182명 등 당초 예상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미래자산' 해조류 선점 효과도=이번 박람회는 미래 식량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조류 관련 산업을 완도와 전남이 선점하는 효과도 거뒀다. 국제 해조류 시

###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폐막

54만여명 찾아 1300억원 생산유발... 지역경제 대박  
7개국 바이어 수출상담·계약... 세계시장 개척 길 터  
차량운행 자제 등 군민들 적극 참여 성공대회 이끌어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해조류박람회장에서 펼쳐진 대형 전북 해조류비빔밥 퍼포먼스.

장을 개척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게 됐다.

단순한 전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국제 학술대회 등을 통해 해조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도 이번 박람회의 성과는 컸다.

박람회 기간 7개국의 해조류 관련 업체 10개사 바이어를 초청, 국내 수산물 기업 30개 업체와 연결하는 수출 상담회를 열었다. 상담회에서 해조류를 비롯해 전복, 해삼, 광어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1200만 달러의 수출상담이 이뤄졌다.

한국과 일본 해조류 기업 20개 업체가 참여하는 수출계약식에서는 완도산 톳과

다시마 3600만달러 수출 계약도 체결했다.

완도군을 비롯해 9개국 생대수산물도시 시장과 슬로시티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시장포럼, 완도선언문 채택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성과도 올렸다.

◇성숙한 국민 참여도 성공 이끌어=성공 박람회를 이끌어 위한 완도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돋보였다.

박람회 운영상, 가장 큰 고민이었던 교통문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말끔히 해결할 수 있었다.

완도 주요 도로에서는 생계형 차량 외에 자가용 차량은 가급적 운행을 자제하고, 주차공간은 외부손님에게 양보했고, 차량

승하차시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갖춰진 정차를 실천했다.

또 업소와 사업장의 자재와 제품 수송은 관광객 통행이 상대적으로 뜸한 아침과 저녁시간을 이용했고 출퇴근이나 마트 갈 때, 자녀 등하교시 차량 운행을 자제하는 차량 2부제도 적극 실천했다.

일반 가정과 식당 등지의 화장실 개방도 호평을 받았다. 한정된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했고, 군민들은 자신의 집을 아낌없이 개방했다. 출항인들도 고향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를 적극 알렸다. 박람회 기간에 약 5000여명의 출항인이 박람회장으로 방문하면서 성공 박람회 개최를 이끌었다.

◇해조류 전진기지로 육성=박람회 사후활용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 박람회장 유일한 고정시설인 주제관은 앞으로 수출상담 공간 및 해조류 판매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4개 전시관과 체험장은 철거하기로 하는 등 박람회장 사후활용 대책도 박람회 개최 전에 구상해 냈다.

완도군은 박람회 개최 효과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자 정월 7명으로 '해조류산업 지원사업소'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해조류산업지원사업소는 박람회 주관에 사무실을 두고 해조류 수출상담, 판매 등 해조류산업 활성화 업무를 추진한다.

해조류산업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더욱 높이고 시너지를 발생시켜 나가고자 민간 조직인 '한국해조류산업발전협의회'도 구성, 운영 중이다.

지난 40여 년 동안 원시적인 생산과 고비용 저효율의 유통체계를 유지하며 제자리걸음을 했던 해조류산업 시장을 1조원대로 견인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원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 해남군, '2014 전남도 토지행정' 대상

해남군이 최근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2014 토지행정 연수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전남도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남도청 및 22개 시·군 공무원과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 임직원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地籍)업무처리 법·제도 개선사항 ▲지적측량 신기술 도입방안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등 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대학교수의 엄정한 심사 등 지적제도의 발전과 토지행정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해남군 종합민원과 지적담당 박정명 주무관은 '스마트 지적구축을 위한 무인항공기 활용방안'의 연구 과제를 발표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남군은 지난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옥천 영신지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회전의 무인항공기'를 활용, 그동안 수작업 측량시 발생하던 측량시간의 편차를 최소화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해남군 관계자는 "회전의 무인항공기를 지적 업무 전반에 활용해 주민편의와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해남군 절임배추 가공공장 2곳 더 짓는다

오수처리시설·포장재 디자인 개발도 적극 추진

해남군이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식품산업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남군은 지역 농·수산물의 가공 상품화를 위해 올해 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해 가공공장 및 오수처리시설, 포장재 디자인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한다.

실제로 군은 해남의 대표적인 특산물 목이자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겨울배추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이면과 옥천면 2개소에 절임배추 및 김치 가공공장을 신축한다. <사진> 가공공장은 2개소에서 모두 연간 6600t의 겨울배추를 가공해 6억원 가량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절임배추 생산농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15개소에 5300만원을 지원한다. 1일 10t 이상을 처리하게 될 오수 처리시설은 1일 평균 500포기 이상 가공처리를 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 절임배추 생산농

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물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쾌적한 환경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물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서도 포장재 디자인 개발 등에 35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내 가공업체 새로운 기술 습득과 전문을 넓힐 수 있도록 우수 농·수산물 식품가공업체에 대해 농수산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사업도 펼친다. 군은 업체의 선호도가 높고 구매 바이어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많이 찾는 규모가 큰 식품박람회를 중심으로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 부스임차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군은 지난 2011년도 도내 22개 시·군 중 최후순 식품산업담당 부서를 신설해 같은 해 7개 사업 29억여원과 2012년 11개 사업 39억여원, 2013년 5개 사업 38억여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 농·수산물의 식품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진도 노인복지관 250명 '사랑드림 진짚상'

진도 노인복지관(관장 박철민)이 지난 8일 아버지 날을 맞아 지역노인 250여명을 초청해 '사랑드림 진짚상'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받고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기념식과 축하공연은 취조하는 대신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무료 특식을 제공했다.

또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멀리 있는

노인들과 경로당 이용 노인들을 위해 각 경로당과 가정을 방문해 건강음료와 과일 등을 선물했다.

박철민 관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받고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기념식과 축하공연은 취조하는 대신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무료 특식을 제공했다. 또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멀리 있는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사건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b>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lt;경매 1개&gt;</b>					
<b>[연립주택, 다가구주택]</b>					
2014타경 1261	1	시군 광천동 569-16 273㎡ 시군 전변좌회로660번길10 1층 주차장 13.68㎡ 2-4층각 149.52㎡ [다가구(5가구)] 제1외 사무실 등 84.4㎡	대 단독주택	507,847,040 507,847,040	일괄매각, 제1외 사무실 등 84.4㎡
<b>[연립주택/다세대/빌라]</b>					
2014타경 572	1	복구 두암동 940 6동 3층 301호 163.74㎡	[다세대]	232,000,000	232,000,000
<b>[대지/임야/전답]</b>					
2013타경 26164	1	나주시 상영동 529-10 115㎡ [매각외건물제외 합법정지상권 설정되어 있음]	대	4,370,000	제외외건물제외 합법정지상권 설정되어 있음
2013타경 29378	2	곡성군 목서동면 평리 15 817㎡	대	1,470,600	1,470,600
		곡성군 곡곡면 원달리 336 585㎡	대	3,217,500	3,217,500

사건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3타경 29378	3	곡성군 곡곡면 동계리 39 926㎡	대	2,778,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3타경 31982	1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24-1 25190㎡ 동소 산124-6 5058㎡	임야 임야	821,874,000 821,874,000	일괄매각, 옥목1본 모수채로만묘기 권설정여지 있음
2013타경 33285	1	광성군 동화면 월산리 520 466㎡ [현황대지]	대	16,968,000	수목포함
	2	동소 산110-4 356㎡ 동소 산110-6 284㎡	전 전	16,968,000 8,960,000	일괄매각, 농지취 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343	1	시군 세하동 산13-1 439㎡ 동소 산13-10 8883㎡ [물건번호: 현황상(유)] [동해오티스와 [유]세하산업에서유지권주장 · 성립여부및결정할수없음]	임야 임야	1,994,572,000 1,994,572,000	일괄매각
<b>[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b>					
2013타경 32459	1	시군 화정동 23-26 2644㎡ [현황대지] 시군 화동로230번길20 1층537.96㎡ 2층2.1 40.32㎡ 3층1,228.24㎡ 4층1,222.36㎡ 5층 1,182.48㎡ 6층259.45㎡ 지하층1,916.5㎡	공용주거 위락시설	13,885,069,500 13,885,069,500	일괄매각, [주]전 간영니니여형외18 명으로부터유치권 신고있음

● 공고된 부동산의 연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하며 이는 최고가(매수최고한도)에 매각경쟁입찰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  
 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부호를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14. 5. 27. [화] 10:00  
 3. 매각신청기일 : 2014. 6. 3. [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집행부  
 5. 매각방법  
 ① 입찰명칭에 비추어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봉투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발행의 자기인수권 또는 현금  
 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서(보증금)를 제공한 문서(입찰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만 이상이 보증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지출목적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관공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최고한도)에 입찰한 자를 최고가(매수최고한도)에 최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  
 찰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만을 대상으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가(매수최고한도)에 미달한 입찰자 중 최고가(매수최고한도)에 미달한 입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매수최고한도)에 미달한 입찰자  
 6. 매각허가 및 담보납부  
 ① 매각허가 및 담보납부  
 ②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차관, 기입보증금 등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등기(등기) 기입을 완료할 때까지는 등록세와 지등기비용을 납부한 후 등록세(등록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등록세)를 납부한  
 지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의 경우 등록세와 지등기비용을 납부한 후 등록세(등록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등록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등록세)를 납부한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차관, 기입보증금 등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등기(등기) 기입을 완료할 때까지는 등록세와 지등기비용을 납부한 후 등록세(등록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등록세)를 납부한  
 8. 주의사항  
 ① 매각의 주체는 상기건물에 최선순위의 지당과 동등한 날로부터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와 매각허가 신청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  
 자를 등록한 임차인 등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대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과 관련하여 열람을 제공하지 않거나 열람을 거부한 경우에는 열람을 신청한 임차인 등 임차인(임차인)의 사본 등을 무리없이 민사집행(민  
 집행)에 비추어 열람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청구를 접수한 후 임차인(임차인)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매각대금 납부방법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한 서류, 현물보증금 등 등록세(등록세) 및 등록세(등록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등록세)를 납부한  
 ⑤ 매각대금에 납부보증금에 요구되는 보증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최고한도)에 입찰한 후 매각허가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하여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임대)계약서 상에 계약이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하지 않다면 매각이 소정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  
 ⑥ 공고된 물건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허위되거나 잘못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 때에는 별도로 신청받은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공고 없이  
 매각이 진행됩니다.  
 ⑦ 신청된 공고에는 불리한 최종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무리없이 청구를  
 하고, 1) 반환에 비추어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 납부 및 전차, 자동차, 재물을 반환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  
 9. 매각일 공고의 효력  
 대법원 총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go.kr [법원공고] - 법원명령발령서  
 ※ 대법원 총재에서 결정할 수 없는 결정은 법원장에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중 국민편의를 위하여 법원명령발령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명령발령서 소멸효력의 청구할 수  
 없으므로, 중상당한 판결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서 민중 국민편의를 위하여 법원명령발령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  
 찰하시기를 바랍니다.  
 2014. 5. 12.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혁민